

Nov 18, 2008 08:33 AM KST

수능생들이 주목하는 라미네이트

올해도 치열했던 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힘겹고 지루한 싸움을 끝낸 수험생들은 한창 해방감에 들떠있을 시점이다. 그러나 눈치 빠른 학생들 사이에선 이미, 푸석한 피부와 평퍼짐한 엉덩이를 하루라도 빨리 떨쳐내고 산뜻한 새내기 시절을 만끽하려는 것이 새로운 임무로 떠오르고 있다.

대학교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연애가 이뤄지는 만큼 외모에 신경을 쓰는 학생들이 많다. 물론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날씬하다면 눈에 띄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로 마주했을 때 치아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벌어진 앞니, 돌출된 입매를 갖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호감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고르지 못한 치열로 인해 자신감이 상실되거나 불만을 갖고 있다면, 라미네이트 치아성형을 권장한다. 라미네이트란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벌어진 치아를 부분적으로 깎아내고, 그 위에 얇은 사기판을 붙여, 가지런한 치아는 물론 영구적인 치아미백까지 가능한 시술법이다.

강남 화이트스타일 김준헌 원장은 "라미네이트는 2~3년이 소요되는 치아교정과는 달리 1~2주 정도만으로도 치아를 가지런하게 만들어 준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전하며 "사후관리 부분이나 자신의 얼굴에 맞는 치아 형태를 원한다면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시술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김준헌 원장(강남화이트스타일치과)